

# 광주·전남 3월 소비자물가도 3%대 고공행진

### 각각 3.2%·3.6% 올라...배 137%·사과 82% 등 과실류 상승 견인 외식·채소류도 많이 올라...정부 재정 투입으로 상승폭은 약간 둔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또다시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금(金)사과'와 '금배' 등 과일값 상승률이 100%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35로 전년 동월(106.11)보다 3.2%, 전월(114.10)보다는 0.2%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농축수산물에 중심으로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물가 안정에 나서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광주 시 소비자물가지수는 3.2% 상승해 전월(3.4% ↑) 보다 0.2%p 떨어져 상승폭을 소폭 좁혔다.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지난달 기준 116.92로 전월과 전년 동월에 견줘 각각 0.4%, 3.2% 올랐다. 특히 식품군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4.2%나 올라 광주 시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상승폭이 컸다. 물가 상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잡혀있지 않고 있는 과일류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광주 시 신선식품지수는 140.30으로 전월(138.73)과 전년 동월(121.43)과 견줘 각각 1.1%, 15.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류가 전년보다 39.3% 급등해 물

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신선과실류를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배가 13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사과(82.7% ↑), 감(73.4% ↑), 귤(51.2% ↑) 등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외식비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떡볶이가 13.8% 올랐고, 김밥(8.6% ↑), 생선회(외식·7.8% ↑), 치킨(3.6% ↑)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전남지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0으로 전년동월(110.96)과 전월(114.58)보다 각각 3.6%, 0.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승폭 역시 전월(3.5%)보다 0.1%p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과일이 꼽혔다. 지난달 전남지역에서는 전년 동기와 견줘 사과

(71.0% ↑), 귤(76.7% ↑), 배(80.0% ↑), 감(45.9% ↑), 키위(26.9% ↑), 참외(25.8% ↑)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올랐다. 그 밖에도 채소류도 전년보다 10.7%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전남지역에서 채소류는 시금치 가격이 52.0%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토마토(31.4% ↑), 풋고추(26.2% ↑), 파(24.4% ↑), 파프리카(19.3% ↑)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소비자 물가도 과일값과 유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 등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증가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충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LH 광전본부 7043억 투자 균형발전·취약층 지원 강화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는 7043억원을 투자해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주선순2, 순천 도시첨단산단 개발사업 등에 385억원, 광주선순2, 해남해리 및 영광단주 공공주택 건설에 2528억원,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노후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사업에 4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규 국가산단단지 조성 등 지역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LH는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최근 일말의 사건으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다소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는게 아쉽다"며 "앞으로 공사 본연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LH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3년 만에 최고가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등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일 3.66% 상승한 8만5000원에 장을 마쳐 2021년 4월 7일(8만5600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0.43% 오른 18만6300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2000년 10월 17일(18만8천444원) 이후 최고가다. 아울러 한미반도체(2.25%)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3%), 현대차(-3.30%), 기아(-3.68%), 셀트리온(-2.2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1.85%)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보험업(1.02%)이 두 번째로 컸다. 이날 금융당국이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차익 매물로 낙폭이 컸던 보험, 증권 등 밸류업 관련 업종이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6포인트(2.29%) 내린 891.59에 장을 마쳤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3.16 (+5.30)
↓ 코스닥	891.59 (-20.86)
↑ 금리(국고채 3년)	3.333 (+0.042)
↑ 환율(USD)	1352.10 (+2.70)

## 광주은행 다자녀행복카드 캐시백 이벤트

### 캐시백 지급·모바일 상품권 경품

광주은행은 오는 올해 말일까지 '다자녀행복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다자녀행복카드'는 광주은행이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출시 약 80일만에 발급 카드 수가 5000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다자녀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캐시백 지급, 경품을 증정하는 등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캐시백 이벤트는 다자녀행복카드를 누적 1만원 초과 이용 시 1만원(해외경용) 또는 9000원(국내전용) 캐시백을 지급한다.

경품 이벤트는 올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고 다자녀행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중 주점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하고, GS모바일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이지만 다자녀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는 카드를 신규발급 받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상은 2자녀 이상 가정이다. 위 조건을 충족할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뒤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 와(Wa)뱅크 앱,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다자녀행복카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 도 광주 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삼성전자 43형 모니터용 무빙 스탠드 출시

### 스마트모니터 무빙 스탠드도 선보여

삼성전자가 43형 모니터용 무빙 스탠드를 2일 출시했다. <사진> 삼성전자는 기존 27형과 32형 모니터용에 이어 43형 '무빙 스탠드'를 선보였다. '무빙 스탠드'는 우레탄 재질의 바퀴로 마모 및 소음 걱정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모니터와 결합해 업무와 학습, OTT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활용성과 기능으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서 활용도가 뛰어나다. 또,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원하는 곳 어디에 배치해도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어울린다.

삼성전자는 '무빙 스탠드' 출시에 맞춰 43형 스마트모니터와 결합한 '스마트모니터 무빙 스탠드(스무스)'도 선보였다. '무빙 스탠드' 출고는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이 26만9000원이다. 43형 '스마트모니터'와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스무스'는 블랙 색상이 90만9000원, 화이트 색상이 9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가 관계자는 "이동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스마트모니터 무빙 스탠드를 대안으로 사용하고 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43형이 출시되었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나 방마다 디스플레이를 두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광주점 다이아몬드 상품 특가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반지·목걸이 등 다이아몬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본점 2층에 입점한 루엔리 매장에서 오는 30일까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다이아몬드 특별기획 상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다이아몬드는 4월의 탄생석으로 '고귀'라는 의미를 지니며 결혼예물 등 선물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루엔리에서는 다가오는 웨딩 시즌을 맞아 예물로 제격인 다이아몬드 상품의 특가 혜택과 더불어 GIA 다이아 제품 구매할 시 같은 크기의 랩다리아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골든두 매장에서도 오는 21일까지 캐럿 다이아몬드 나석 기획 특가 혜택 및 다이아제품을 5~10% 할인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차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때 경력 인정 보험료 싸진다

### 금융당국, 경력인정기준 개선 장기렌터카도 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그동안은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었다면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

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준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정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